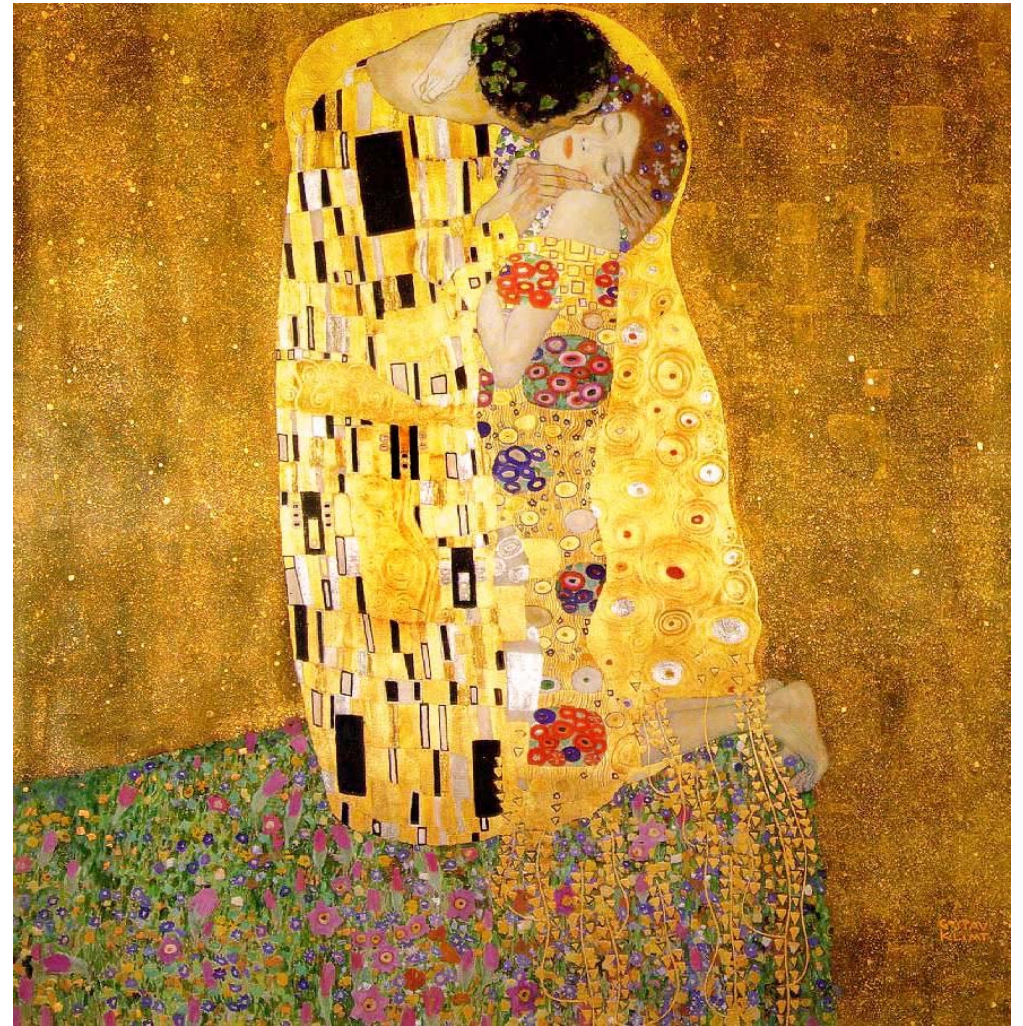


*Erotism과 Eroticism



1. Erotism이란?

① Eros ‘사랑’

- 아프로디테의 아들, 사랑의 신, 연애의 신
- 육체적인 사랑, 이성간의 사랑
- Erotic: 에로스적, 성적 (성적인 욕망을 자극한다는 분위기 풍김)
- 인간을 창조한 존재: 그리스도교, 그리스 신화 (프로메테우스 ‘선각자’ ‘선견자’)
- 지혜의 여신 아테나: 나비 (프로메테우스가 흙으로 빚은 인간의 콧구멍 속으로)
- 나비: ‘프쉬케’ (정신, 마음, psyche, psychology)
- 에로스와 프쉬케 스토리
- 인간공주 프쉬케와 아프로디테
- 아프로디테와 황금사과/ 파리스와 헬레네
- 프쉬케의 의심하는 마음

프쉬케: 모습을 보이시지 않는 까닭이 있다면 그거라도 가르쳐 주세요

에로스: 내가 좋아서 이러는 것이니 굳이 내 모습을 보려 하지 마세요. 나는 그대를 사랑하는데 내 사랑이 믿어지지 않는 건가요? 믿어지지 않으면 내 곁을 떠나세요. 의심이 자리잡은 마음(프쉬케)에는 사랑(에로스)이 깃들지 못해요. 내가 그대에게 모습을 보이지 않는 까닭은 그대가 나를 사랑하기를 바랄 뿐이지 삼가거나 섬기기를 바라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프쉬케

‘의심이 고개를 들면 그 고개를 누르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하다. 하지만 의심의 뿌리는 그런다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하면 의심의 뿌리를 캐내어 버릴 수 있을까? 그렇다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면 된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는 순간 의심은 뿌리째 뽑힌다.’

‘내가 이 호기심을 채우지 못하고 나날이 야위어 가면 신랑에게도 좋을 것이 없다. 그래 확인해 보자. 신랑이 어떤 분인지 확인해 보자. 이것이 나에게도 좋은 일이고 결국은 신랑에게도 좋은 일이다.’



*수심에 잠긴 에로스

‘어리석어라 프쉬케여 내 사랑에 대한 보답이 겨우 이것이오? 사랑에 대한 보답이 겨우 파국이오? 내가 모습을 보여 주지 않았던 것은 어머니의 뜻을 거스르고 그대를 사랑했기 때문이오. 사랑의 그릇은 채움으로써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움으로써 채우는 것이라던 내 말의 이치가 그렇게 알아듣기 힘들던가요? 가세요. 그대에게 따로 벌을 내리지는 않겠어요. 사랑이 남아 있다면 영원한 이별보다 더 큰 벌은 없을 테니까…우리는 오로지 영원히 헤어져 있을 따름이오.’



*비너스

‘이 하찮고 믿음이 적은 것아, 네가 신을 섬기는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야 알겠느냐? 네 신랑은 내 말을 꺾가로 흘리고 너같이 하찮은 것에게 사랑을 기울이더니 어깨에는 화상, 가슴에는 상처를 입고 돌아와 몸져누웠다. 참으로 밍살스럽고 비웃장이 틀리는 것아, 내가 이제부터 너를 시험하리라’



‘분수를 몰라서 신세를 망치고 의심을 물리치지 못하여 만고의 고생을 사서 하더니 이제 또 호기심을 이기지 못해 이 꼴이 되다니...어서 일어나 내 어머니 신전에 가서 기다리세요. 나는 다녀올 곳이 있으니....’



- 아프로디테 포르네: 음란한 사랑의 여신 (육체를 사랑)
- 에로스: 프쉬케(마음) 사랑

②에로티즘

-성의 기능?

-인간 인식의 발전 과정

↳노동: 100만 년 전 호모 파베르(노동 하는 인간), 이성 획득

↳죽음: 10만 년 전 네안데르탈인()

↳에로티즘: 2만 년 전 호모 사피엔스



에로티즘 인식=동물성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인간

이성적 인간: 성행위의 의미 파악



성행위 목적 부여:쾌감



육체기관의 맹목적 본능(동물)→의도적 유희(인간)로 대체

*에로티즘=아기의 탄생, 생식이라는 자연 본래의 목적과 무관하게 성에 탐닉

인간=에로티즘을 추구하는 유일한 동물, 성행위를 에로티즘으로 승화

-라스코 동굴 벽화: 에로틱한 양상, 에로틱한 욕망 표현, 에로티즘 탐닉

-인간의 내적 삶의 한 양상

-인간의 성행위 ≠ 동물의 성행위

-인간의 성행위가 동물적이지 않을 때 에로티즘=심리적 연유, 내적 동기